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1.08.16 (통권361호)



경제이슈

美 더블딥 우려, 유럽으로 전이될 가능성
국내증시, 외국인 매도세 지속

경영노트

브랜드 포트폴리오의 효율적 관리

사회 트렌드

너도 나도 해외 휴가
구글의 모토로라 전격 인수

저널 브리프

신인류의 등장

洗心錄

멈춤의 미학, 재상 범려

□ 美 더블딥 우려, 유럽으로 전이될 가능성

-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대두되며 글로벌 증시 하락세 가속화
 - 미국 신용등급 강등 : 8월 5일 국제 신용평가사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강등함에 따라 미국 증시가 폭락하는 등 미국 더블딥 우려가 고조
 -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우려 : 미국에 이어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도 강등될 것이란 루머가 확산되며 8월 10일 프랑스 CAC40 지수가 5.5% 가까이 폭락하는 등, 미국과 유럽 주요국 증시가 동반 급락
 - 유럽 금융시장 타격 우려 : 2011년 3월 기준 유럽 주요 은행의 對 미국 투자금액은 3조 7,110억 달러로 추산되어 미국 더블딥 발생시 유럽 금융시장 타격 불가피
- 미국 더블딥 우려가 유럽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유럽 재정위기와 맞물려 유럽 2차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대두될 전망

□ 국내증시, 외국인 매도세 지속

- 국내 증시에 참여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며 국내 증시 하락을 견인
 - KOSPI 시장 : KOSPI 시장에서 외국인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1조 7,512억 원을 순매도한 데 이어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추가로 2조 8,118억 원 가량의 주식을 순매도
 - KOSDAQ 시장 : KOSDAQ 시장에서 외국인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1조 1,302억 원을 순매도한 데 이어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추가로 520억 원 가량의 주식을 순매도
 - KOSPI지수 1800선 붕괴 : 2주 연속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지속됨에 따라 8월 12일 KOSPI 지수는 1793.3p로 마감하여 심리적 지지선인 1800선을 하회
- 국내 주식 시장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당분간 국내 증시는 약세를 지속할 전망

□ 브랜드 포트폴리오의 효율적 관리¹⁾

- 브랜드의 중요성이 강조된 20세기 후반부터 다양한 브랜드들을 탄생시킨 기업들이 이제는 브랜드 포트폴리오의 효율성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
 - 기업의 보유 브랜드 수가 증가함에 따라 브랜드 관리 비용도 늘어났을 뿐 아니라 마케팅 관련 의사결정 속도 역시 크게 저하되었음
 - 이에 따라 최근 기업들은 그동안 무리하게 확장했던 브랜드 포트폴리오의 효율성 및 리스크 완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브랜드 포트폴리오의 효율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지닌 브랜드까지 구조조정하여 기업의 장기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유의해야 함
 - 1999년 유니레버는 1,600개에 달했던 브랜드 가운데 매출이 부진한 1,200개를 구조조정하는 5년 계획을 수립함
 - 하지만 브랜드의 장기 경쟁력에 대한 기준 없이 단기 매출 중심의 구조조정은 기업 매출 및 수익성의 악화로 이어지며 결국 계획이 중단됨
- 효율적인 브랜드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서는 시장의 특성에 따른 브랜드의 선택과 집중, 기존 브랜드 가치의 활용 및 유연화 등이 필요함

< 브랜드 포트폴리오의 효율적 관리 방안 >

	내 용
선택과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특징에 따라 집중 투자 브랜드를 선정하고 불필요한 브랜드는 포기 • 2005년 LG화학은 몇 개의 브랜드밖에 기억되지 않는 인테리어 자재 시장의 특성에 따라 10개의 브랜드를 ‘지인(z:in)’ 하나로 통합하여 육성함
투자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시장 규모, 점유율)를 감안한 전략 설정 • 1,600억 원에 불과한 국내 차 음료 시장에서 점유율 20% 내외의 ‘옥수수 수염차’와 ‘17차’만이 개별 브랜드로서 투자 효율성을 갖추고 있음
기존 가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 브랜드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한 영향력 증대와 위험 최소화 • 한국인삼공사는 신제품 출시 시 새로운 브랜드보다는 기존의 강력한 브랜드 ‘정관장’을 활용하여 신규 시장 진입의 위험을 최소화
유연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강화와 브랜드 포트폴리오의 유연화를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 • 시장 대응이 느린 제과 업계에서 오리온은 ‘닥터유’와 ‘마켓오’를 통해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며 신규 시장을 선점

1) 본 자료는 ‘브랜드 구조조정 성공 이끄는 5가지 전략(동아비즈니스리뷰, 2011. 7)’을 요약 정리함

□ 너도나도 해외 휴가²⁾

-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가세했던 국내휴가 활성화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국제선 여객 수요가 월간 실적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
 -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항공여객이 394만 명에 달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357만 명)보다 10.6% 늘어난 실적으로 역대 월간 최고
 - 휴가 등 여름철 성수기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일본(-6.6%)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항공 여객이 증가

- 대통령까지 나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것을 권장했지만, 국민들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국내 여행을 외면하고 여전히 해외 여행을 선호한 셈
 - 미국발 금융 쇼크가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지만, 항공여객 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8월에도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태라 해외 여행객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구글의 모토로라 전격 인수³⁾

- 구글이 미국 휴대폰 제조사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 달러에 인수
 - 안드로이드라는 모바일 운영체제(OS)를 공급해온 구글이 휴대폰 제조업에 뛰어들어 삼성전자, LG전자 등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짐

-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로 세계 휴대폰 시장 판도가 달라질 전망
 -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계속 개방형 OS로 공급하고 모토로라를 별개 회사로 운영한다고 해도 삼성, LG, HTC 등 안드로이드 진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
 - 애플과 구글의 전면전도 불가피해질 전망

2) “국내 휴가 캠페인 헛수고, 너도나도 해외로”(한국일보, 2011.8.16) 참조

3) “구글, 모토로라 전격 인수...삼성 초비상”(한국경제신문, 2011.8.16) 참조

□ **신인류의 등장4)**

■ 개인의 개성이 중요시되고 사람들의 관심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생활방식을 향유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들이 생겨남

① 아름다운을 추구하는 남성, ‘그루밍족’

- ‘그루밍족’이란 스스로의 외모를 가꾸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젊은 남성을 지칭함
- 외모도 경쟁력의 일부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젊은 남성들이 패션지를 보며 최신 트렌드를 익히고 남성 전용 화장품을 구입하며 면접같은 중요한 일이 있는 경우 가벼운 메이크업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음

② 아름다운 중년, ‘루비족’

- ‘루비족(Ruby)’이란 삶에 활기를 불어넣고(Refresh), 평범한 아줌마임을 거부하며(uncommon), 아름답고(beautiful), 젊어 보이는(youthful) 45~55세 여성을 지칭함
- 루비족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건강과 미모, 삶의 즐거움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함

③ 내 아이 대신 조카, ‘골드앤트족’

- ‘골드앤트족’은 경제력이 높은 여성을 지칭하는 ‘골드미스’와 고모, 이모를 뜻하는 ‘앤트(Aunt)’가 합쳐 생겨나 신조어임
-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고모나 이모들이 조카들을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귀여워하며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현상이 증가한 데서 비롯됨

④ 지금을 사는 ‘찰나족’

- ‘찰나족’이란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스마트폰, 넷북 등 기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해 실시간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들을 의미함
- 이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수시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접속하여 근황을 파악하고 원하는 정보를 파악하는 데 능함

⑤ 조금은 느리게 사는 ‘슬로비족’

- ‘슬로비족’은 ‘Slow but better working people’, 즉 천천히 그렇지만 더 완벽하게 맡은 바를 해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칭함
- 이들은 과도한 경쟁이나 물질적인 성공에 집착하기 보다는 마음의 여유와 가치를 중시함

4) 「신인류 개성시대 당신은 어떤 종족?」 (이코노믹리뷰, 2011.5.2) 참조

□ 멈춤의 미학, 재상 범려

와신상담(臥薪嘗膽)이란 중국 춘추 시대 오(吳)나라 임금 부차(夫差)가 월(越)나라 임금 구천(句踐)에게 부왕의 원수를 갚고자 매양 쉼 위에서 잠을 자면서 고생을 하였으며, 월나라 임금 구천은 부차에 대한 치욕을 씻고자 쓸개를 핥으며 복수를 잊지 않았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말이다. 그러나 이 고사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월나라 재상 범려(范蠡, BC 6~BC 5세기)이다.

범려는 월나라 구천에게 출사한 후, 구천이 오왕 부차에게 회계산에서 대패하자 구천과 같이 부차의 포로로서 말뚝이꾼이 되는 굴욕을 감수한다. 그리고 구천으로 하여금 부차의 신임을 얻어 고향으로 귀환하게 하고자 병을 얻은 부차의 대변을 맞보는 재치를 발휘한다. 월나라로 돌아온 범려는 복수를 하고자 국가생산력을 강화시키고 군사를 키운 지 20여 년 만에 고소산에서 오나라 부차를 대패시키고 구천을 패자의 자리에 올린다.

이후 범려는 복수를 위한 냉철한 정치가가 아니라 자신의 영역에서 정점을 도달했을 때 자신을 비우는 군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선 범려는 구천이 패자가 되자 구천이 덕이 없음을 알고, 동료인 대부 문종에게 ‘교활한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는 잡는 법입니다.’라는 서신을 보낸다. 그리고 부귀영화 대신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난다. 월나라를 탈출한 범려는 제나라로 가서 이름을 바꾸고 해변을 가꾸어 수십만 금의 농업자본가가 된다. 그리고 제나라 사람들로 부터 상국(相國)이라 불리게 된다. 이때 범려는 ‘천금의 재산에서 상국에 이르렀으니 보통 사람이 갈 수 있는 정점에 이른 것이다. 높은 이름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불길하다’ 말하고 가산을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넘긴 후 두 번째 멈춤의 미학을 보여준다. 이후 도(陶) 땅으로 가 장사를 한 범려는 또 거금을 모으지만 가업을 자손들에게 맡기고 물러남으로서 대상인으로서 마지막 멈춤의 미학을 보여준다. 이런 멈춤의 미학을 보여준 범려는 중국 역사상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

상식은 18세 때까지 후천적으로 얻은 편견의 집합이다.
 Common sense is the collection of prejudices acquired by age 18.
 - 앨버트 아인슈타인 (1879~1955) : 미국 물리학자